

국내 최대 규모 광융합산업전시회 광주서 열린다

29~30일 포토닉스 코리아 개최 반도체·AI등 광융합신기술 선배 8개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가 핵심산업 발전·도약 기대”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전시회인 ‘포토닉스 코리아 2024(제22회 국제광융합산업 전시회)’가 오는 29~30일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0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광융합산업전시회는 지난 2001년 ‘국제 광산업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이

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광융합산업의 중심도시’ 광주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광기술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미래형 자동차 및 광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는 물론 우리 일상에 활용되고 있는 광융합산업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옵토닉스, 엔에이치 네트워크, 한국알프스, 오이솔루션, 우리로, 티디엠 등의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을 비롯해 한국광기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광주테크노파크·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그린카진흥원 등 국내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이 광통신 부품과 광융합 응용분야에서 최신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인다.

그중 옵토닉스는 7가지 간단한 동작으로 몸 전체 균형과 향후 골격근계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Tango Body를 첫선을 보이며, 우리로는 라이더 핵심 수신부품으로 활용되는 핵심 소자를 출품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우주용 라이더 센터 및 3D 인공지능 인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전시 품목은 △광통신(광송수신기, 광분배기, 광커넥터, 광케이블 등)

△광조명(상업·주거·공공형조명, 특수조명) △광의료바이오(정형외과용 치료재료, 광초음파 의료기기 등) △광정밀(광센서, 광계측기기) △광소재부품(광통신 모듈, 광학 렌즈, 광섬유 등) △광영상정보(LCD, 영상표시 기기 등) △광결상정보(디지털·모바일 카메라, 자율주행 카메라 등) △광에너지(광에너지 변환 및 저장장치 등) 등 광융합 8대 분야다.

미국·일본·베트남 등 전 세계 8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도 열린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이익 창출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흥회는 수출 상담을 통해 200억원 규모

의 수출 상담과 84억원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정부 및 광주시, 주요 기관 및 기업대표, 해외바이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시회 기간에 제11회 광융합산업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및 제품디자인 공모전, ETRI 테크데이, 레이저 첨단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콘퍼런스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윤경모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회장은 “지역에서 20년간 성장해 온 광융합산업의 신기술 신제품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사과의 신세계’ 광주신세계는 오는 24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전국 유명 산지의 햇사과 7종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사과의 신세계’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과 중 가장 높은 당도를 자랑해 ‘사과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감홍사과(4입·1만9900원), 당분이 올라올 수록 진한 황금색을 띠는 시나노골드사과(4입·16,500원)가 있다. 이외에도 천홍 미니 사과, 홍로사과, 양광사과 등 다양한 품종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대차, ‘배터리 개발’ 기술인력 신규 채용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함께할 기술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의원연구소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을 설립하고 있다. 이곳에서 배터리 개발에 힘을 기술인력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배터리 기술인력이 수행하게 될 업무는 △배터리 샘플 제작 및 품질 관리 △개발 장비 유지 및 보수 △소재 및 부품 관리 등이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 제한은 없다. 세부요건은 현대차 기술인력 채용 홈페이지(<https://technician-talent-hyundai-no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서류 접수는 3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11월 중이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12월 1차 면접, 내년 1월 최종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정적인 소재 확보

부터 배터리 설계 및 관리 역량강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 배터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술 역량을 갖추 계획”이라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인 배터리 기술의 진보 과정을 함께할 인재들이 이번 기술인력 채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에 배터리 개발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배터리 시스템, 셀 설계, 배터리 안전 신뢰성 및 성능 개발, 차세대 배터리 등 선행 개발을 포함하는 기능별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제 1142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8 28 30 37 41	2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31억1751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979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64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 24일 광주서 개막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전국 회원사 등 4000여명 참석

중소기업 간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인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오는 24일 광주에서 개막한다.

20일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 공동 주최하고,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오는 2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 개막식을 거쳐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융합대전은 전국에서 4000여명의 국내외 회원사 및 일반 관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간의 폭넓은 네

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광주·전남 지역 외에도 전국 12개 지역에서 모인 기업인 1300여명이 광주를 찾아 광주비엔날레 방문, 현지 맛집 탐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권 광주전남연합회장은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을 통해 광주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음식의 매력도 전국에 알릴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광주를 찾은 기업인들이 지역 음식점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수여, 주제 강연이 진행되며 행사 기간 300여개의 전시부스와 포럼 및 세미나가 진행, 다양한 중소기업의 성과와 다양한 특허 기술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일자리 박람회, 수출 상담회가 마련돼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자체행사로는 지역체육대항전(골프대회), 광주비엔날레 관람, Adieu 광주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기업, 분야와 분야 간에 융합을 경험하며 기업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대전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협력을 격려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기술 융합, 협업 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서 총 53점(정부 포상 15점 포함)의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로써, 우수한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성장을 기릴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GGM 노사, ‘성실교섭’ 지노위 조정안 수용

시 “광주형일자리 원칙 지켜야” “중재위서 노사이전 적극 중재”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노사는 광주형 일자리의 원칙과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GGM 노조는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다행히 지난 18일 노사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중

GGM이 유일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가 협정서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GGM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도 GGM 노사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단체총연합(523개 단체), GGM주주 등은 최근 성명을 내 “GGM 노사는 상생협력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살려

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한 점은 다행이지만, 노조가 조정 절차 중에 파업 찬반투표를 서둘러 진행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GGM 노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어 “GGM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서 가지는 가치와 목적을 명심하고, 노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서 지역 최초 ‘발로란트 e스포츠 한중전’

내달 2~3일 조선대서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주 e스포츠 시리즈아시아가 오는 11월 2~3일 조선대 광주 e스포츠경기장에서 발로란트 최초 한중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발로란트 한중전이다. 한국에서는 2024 발로란트 마스터스 상하이,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우승을 차지하며 퍼시픽의 왕좌로 등극한 젠지와 ‘메

테오’ 김태오, ‘버즈’ 유병철을 중심으로 개편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T1이 출전한 다.

이에 맞선 중국에서는 VCT CN 시즌 1, 2 우승에 이어 2024 챔피언스 서울 우승으로 중국 첫 챔피언스 우승까지 한 EDG와 2024 챔피언스 서울에서 화끈한 경기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TE가 나선다.

경기 종료 후에는 선수들을 만나는 팬

사인회를 연다.

아울러 구단 굿즈샵, 현장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오픈 토너먼트, 데일리 승부 예측 이벤트, 경품 럭키드로우 등을 한다.

2024 GES ASIA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 예매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e스포츠 경기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현 기자**